

**대한전선(주)**

1분기 경상이익 155억원

대한전선(대표:이청용)의 올 1분기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까지 매출은 3019억원, 경상이익은 155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지난 4월 15일 밝혔다.

이 회사의 올 1분기 매출 3019억원은 2775억원을 기록했던 직전 4분기보다 8.8% 늘어난 수치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침체되기 시작했던 경기가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통과해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업이익은 183억원으로 집계되 이전 4분기 157억원보다 16.6% 늘어났고, 경상이익은 적자에서 155억원 흑자로 돌아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 회사가 이 같은 실적을 거두게 된 것은 핵심사업인 전력사업과 통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올 1분기 동안 760억원의 실적을 올린 전력사업은 670억원을 기록했던 전분기보다 13.4% 늘어나 수익성 개선에 가장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회사가 올 초 목표로 했던 초고압부문 매출 1900억원은 한전의 투자확대와 함께 해외 초고압 터키 프로젝트 경기호황에 힘입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비교해 통신부문은 올 1분기에

250억원의 실적을 거뒀. 지난 해 4분기 매출 210억원보다 19% 성장해 이 같은 전망에 점차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말 이 회사 해외 계열사인 말레셀라대한일렉트릭케이블(MTEC)이 남아공 제1통신사업자인 텔콤(Telkom)사가 실시한 광케이블 국제입찰에서 총 물량의 60%를 수주해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광섬유시장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단한 수확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연 50만f.km씩 3년에 걸쳐 총 150만f.km(약 1억 2천만달러)를 텔콤사에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M-TEC이 수주한 광케이블 원재료인 광섬유를 대한전선이 지난 2000년 7월 광섬유 전문생산업체로 계열화시킨 옵토매직이 전량공급하게 되어 이 계열사 매출도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광통신부문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초고압부문의 매출이 가속화될 올 하반기부터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올 초 목표로 세웠던 영업이익 1100억원, 경상이익 900억원, 순이익 7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보고 있다. 여기는 이 회사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스테인리스 부문의 순익 가세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스 주식처분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크

게 개선한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상당한 평가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해 이 회사는 광통신과 초고압 부문 등 핵심사업의 매출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1026억원, 순이익은 505억원을 내, 전기보다 30%, 192% 성장을 거둔 바 있다.

**두산중공업(주)**

당진 火電 5,6호기 수주, 3229억원 규모

국내 최초 발전설비 국제 경쟁입찰

두산중공업(www.doosanheavy.com)이 3229억원 규모의 당진 화력발전소 5, 6호기 주기기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한국동서발전(주)와 당진 화력발전소 5, 6호기(500MW×2기)에 들어가는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의 주기기 및 부속설비 공급 및 설치 프로젝트에 관한 입찰에서 가격 및 기술에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여 동안 평가를 거친 후 지난 달 1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 프로젝트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괄도급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내 발전설비 입찰 사상 최초의 경쟁입찰로 보일러 부문에서는 일본의 바브콕 히타치(BHK) 컨소시엄과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터빈 발전기 부문에서는 히타치 컨소시엄과 미쓰비시 컨소시엄 등이 외국업체로 참여해 지난 7개월 여 동안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당진 화력발전소 5, 6호기는 국내 최초의 국제경쟁 입찰 프로젝트로 향후 국내 발전설비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2010년까지 국내에서 예정된 총 54기의 발전소 입찰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진 화력발전소 5, 6호기는 1~4호기가 건설된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리리에 건설될 예정이며, 5호기는 2005년 12월에, 6호기는 2006년 6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98년 12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3억 3천만달러에 수주한 알따월라(Al-Taweelah)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공사를 마치고 지난 4월 17일 종합 준공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행사에는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수전력

청(ADWEA, Abu Dhabi Water & Electricity Authority) 셰이크 디아브(Sheikh Diyab)회장, 발주처인 CMS 발전회사(CMS Generation) 토마스 엘워드(Thomas E. Elward) 사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위 용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1250만갤론(58,000톤/1일)을 생산할 수 있는 증발기 4기로 구성, 하루 1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3만톤(5천만 갤론)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초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이다.

특히 이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공정을 턴키(Turn-Key)로 수행했으며, 발전부문에도 두산중공업은 폐열회수 보일러 3기를 제작, 공급했다.

두산중공업은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 길이 90m, 폭 30m, 높이 15m, 중량 3500톤에 달하는 초대형 증발기(Evaporator)를 기존의 2~4개 모듈로 나눠 출하해 현지에서 재조립하던 기존의 증발기 제작 설치방법에서 벗어나 완전 조립상태로 출하하는 원모듈(One-Module)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했다.

이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해체-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률을 줄여 품질을 향상시켰고, 건설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 동급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최단 납기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 현대중공업(주)

임직원, ‘사랑의 헌혈운동!!’

올해로 11번째, 3월말부터 2주간 전개

現代重工業(대표: 崔吉善) 임직원들이 헌혈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헌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수입을 해야 할 만큼 혈액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사내 곳곳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중식 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사내 식당과 생산 현장 등을 순회하는 2대의 헌혈차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헌혈을 하고 있다.

헌혈운동 첫날인 3월 25일에는 60명의 직원이 참가하여 2대의 헌혈차를 가득 메우는 등 이번 행사 기간 중 총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첫날 헌혈에 참가한 장비운영부 송인화씨(58세)는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도 진단할 수 있는 보람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헌혈운동은 지난 1992년부터 올해로 11번째를 맞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다른 회사 직원이

나 일반인들에 비해 현혈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이번 현혈 운동을 계기로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LG전선(주)

#### 뚜렷한 경영실적 회복세

LG전선(대표 한동규 www.lgcable.co.kr)의 경영실적이 작년 4/4분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IR팀 박진호 대리는 “지난 3월말까지의 매출액은 4341억원, 영업이익은 260억원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은 전분기보다 2.2% 가량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무려 10배 가까이 대폭 늘어난 수치여서 회사측에서 주장해 온 ‘작년 4분기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복세의 주 요인으로는 사업의 두 축인 전력선과 통신선 사업의 매출이 각각 전분기 대비 20%, 25% 상승(전력선 550억원→650억원, 통신선 400억원→500억원)한데다, 농기계(2~4월에 매출의 80% 발생) 및 일반전선 등 일부사업의 계절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은 비록 매출액 5000억원 이상에 영업이익률 10%

를 상회했던 작년 상반기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 발 불황’의 침체에 서 벗어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매출비중 11%에 영업이익 비중 50% 대(2001년 기준)를 기록한 이 회사의 광케이블 사업은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공장가동률 100%에서 40% 대로의 하락, 해외고객들의 주문 물량 연기로 인한 400억원 대의 매출액 감소, 광케이블 판가 30% 하락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상장 대기업들의 1분기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됨으로써 3~4개월 텀(term)의 경기후행적 성격을 띠는 LG전선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호황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전의 투자확대와 해외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에 따른 초고압 전력선 사업의 지속적 호조, 손익분기점에 근접해 있는 광케이블 판가의 이전 수준 회복과 미국·유럽 등 주요 자본시장의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 실적은 작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초고압 전력선 사업의 경우, ‘사상 최대의 호황’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할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의 물량(1860억원 규모)이 모

두 확보되어 있어 전체 전력선 부문의 목표 매출액인 24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전기연구원

#### "동기발전기용 디지털 통합형 자동전압조정기 기술", "텍کم마트 21" 기술상설시장 상정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 계측제어연구그룹 안종보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4일(목) COEX 14층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상설시장인 “텍کم마트 21”에서 “동기발전기용 디지털 통합형 자동전압조정기(Automatic Voltage Regulator)”를 관련 기업에 이전해 주기 위해 기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한국전기연구원이 이전해 주려는 “동기발전기용 디지털 통합형 자동전압조정기(Automatic Voltage Regulator)”는 비상용, 이동용 전원 등에 사용되는 동기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기로, 안정운전, 보호기능,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첨단 디지털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이다.

또한, 고속 디지털 제어기와 전력변환장치, 운전표시장치기 일체화되어 있는 통합형 디지털 자동전압조정 장치이며, 동기투입기능, 자동역률 운전, 정전시 자동기동기능 등을 하나의 장치에 집약시켜, 본 장치를 이용하여 비

상용 발전기 제어반을 제작할 경우 기존 시스템보다 50% 이상 제어반 치수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

**WEC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3월 20일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LLC(WEC; 당초 ABB-CE사였으나 2000년에 WEC로 합병)의 Charles. W. Pryor 대표이사, WEC 모회사인 BNFL의 Norman Askew 사장과 박용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5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 WEC사와는 국내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 설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기 체결된 “경수로 기술사용 협정”과 “원자로 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 계약” 등을 통해 APR1400 개발 등 관련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WEC사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양사간의 협력관계가, ABB-CE사의 WEC 합병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한국전력기술과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보다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회사의 경영전략인 신규원전 건설사업과 가동중 원전 서비스사업 등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양사의 폭넓은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양 회사는 원전 및 관련기술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협정”은 WEC가 ABB-CE사를 합병한 이후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인 협력협정으로서, 향후 국내·외에서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O&M사업의 공동개발과 해외에서 건설되는 원전사업에 대한 사업개발을 WEC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로써 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중 원전사업개발과 원전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양사의 경영자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상호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제11회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작문 공모전 개최**

산업자원부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1세기 주역인 차세대들에게 원자력발전의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해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자력작문을 공모한다.

금년 원자력작문 공모는 중·고교생들이 원자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속에서 보고 느낀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작문공모전은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수상작품집발간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응모를 원하는 학생은 원고 접수기간(200. 4. 15(월)~5. 24(토))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은 예비심사(1~2차), 최종심사(3차)를 거쳐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상(2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2편) 등 각종 시상 및 장학금이 주어지며, 우수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상 및 연구비를 부상으로 지급한다.

한편, 입상작 발표는 7월 11일(목)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7월 25일(목) 실시한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창립 1주년 맞아 ...**

국내 전력사에 신기원을 열면서 새로 출범한 한국수력원자력(대표이사 최양우)이 사창립 1주년을

맞이하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발족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자산규모 20조원의 발전전문 회사로서 국내 총 발전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국가주요기간산업체이다.

회사 출범 후 지난 한해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국내 원전 사상 최고의 운영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 초우량 기업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세계 제6위의 원자력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앞으로도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는 한편, 세계 최우수 전력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LG산전(주)

### 산업용 리모트 입출력기기 출시

LG산전(대표:金正萬 www.lgis.co.kr)은 1년간 약 3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용 리모트(Remote) 입출력(I/O)기기(모델명:LG Smart I/O) 24종을 개발하고 지난달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모트 입출력기기는 통신네트워크(Field Network)로 현장(Field)에

분산되어 있는 입출력기기들을 실시간 제어하는 기기로서 기존에 비해 배선절감, 시스템의 보전 및 확장이 용이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는 기기에 대해 고신뢰의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유럽지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프로피버스(Profibus)-DP, 미주지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넷(DeviceNet), 모드버스(Modbus)뿐만 아니라 LG산전 전용 네트워크인 알넷(Rnet) 등 총 4종의 통신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6점과 32점 단위의 다양한 입출력기기를 갖추고 있어 LG산전 마스터기기(PLC, PC 등)뿐만 아니라 타사의 마스터기기와의 시스템 구성도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경쟁사 제품 대비 외형크기를 약 20% 축소하여 설치공간을 최소화하였으며 DIN Rail 부착이 가능하여 설치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LG산전은 이번 산업용 리모트 입출력기기 출시로 내년 국내외 시장에서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기종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G산전은 올해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 증가한 1862억원을 기록하

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한 286억원, 경상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한 114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G산전 김정만 사장은 "산업용 전기 자동화기기 분야 사업특성상 1분기 실적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1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사업계획대비 66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133억원, 경상이익은 210억원, 당기순이익은 142억원을 초과 달성할 정도로 실적이 대폭 호전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정만 사장은 또한 "이번 1분기 잠정 실적은 현금 유출이 없는 영업권 상각금액(118억원)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 404억원, 경상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157억원을 기록했다"며 "지난 해 1분기 때 약 1조 400억원에 달하던 순차입금 규모도 보유 유가증권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이번에 약 7240억원으로 감소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덧붙였다.

LG산전은 올해 474억원 규모의 영업권 상각액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순차입금 규모를 연말 6200억원대로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